

“기업 이전·신규 투자는 고창으로”

郡, 지방소멸 위기 극복·경제 활성화 위한 기업 유치 총력 산단 입주 시 인센티브...자동차·반도체 기업 300곳에 서한

고창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를 사활을 걸었다. 고창군은 최근 심덕섭 군수가 지역내 기업 유치를 위해 전국 자동차 부품업체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군수 서한문과 산업단지 입주 인센티브 안내 홍보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자동차·반도체 부품산업 등 첨단 미래산업과 친환경 ESG 기업 유치를 위한 고창군의 의지를 담았으며 특히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기업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창일반산업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와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고창IC·남고창IC·선운산(흥

덕)IC 3개와 직접 연결돼 최상의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또 지정학적으로 목포와 군산의 중간에 위치해 서해안 시대를 맞아 대 중국 및 동남아시아 해양 운송 물류 전진기지로써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안전하고 쾌적한 기업환경을 위해 전선 지중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저렴한 분양가(3.3㎡당 20만원 대)로 인근 지역 산업단지에 비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업 이전 및 신규 설립 시 각종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고창군은 현재 고창관내 기업이 들어올 경우 투자금액의 20억원부터 단계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더욱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별 맞춤형 지원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기업 물류비 최대 50% 지원, 출퇴근용 버스 지원, 입주기업 근로자 기숙사 입주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비용을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고창군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인 강호항공고(항공기계·전자과)와 영선고(자동차학과) 등이 있어 최적화된 맞춤형 인력을 즉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서한문 발송으로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크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친환경 ESG 기업 유치를 온 힘을 쏟아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사에 올려퍼진 궁중음악 ‘수제천’



정기연주회·학술대회

궁중음악 ‘수제천(壽齊天)’의 가치를 되새겨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공연과 학술대회가 정읍에서 잇따라 개최됐다.

정읍시와 (사)수제천보존회가 주최·주관한 ‘제15회 수제천 정기연주회 및 학술대회’가 지난달 29, 30일 이틀간 열렸다. <사진>

수명이 하늘처럼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의 제목을 가진 수제천은 궁중의례와 연향에 연주되고 있다. 특히 정읍이라는 지역명을 가진 유일한 전통기악곡으로 백제가요 ‘정읍사’의 반주음악으로서 선율이 아름답고 웅장하여 궁중음악인 아악 중 백미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는 백제가요 정읍사에서 기원한 수제천을 보존하고 전승함은 물론, 우리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줌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에는 이학수 시장과 장기철 이사장, 김현덕 수제천 후원회장을 비롯해 가족 단위 관람객과 시민들이 참석해 수제천의 선율을 감상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학술대회는 ‘정읍곡과 무고 복원’을 주제로 이동복 경북대 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감자꽃 스튜디오 이선철 대표의 ‘전통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단국대 임미선 교수·송실대 문숙희 교수의 ‘대약후보에 의한 정읍곡 복원에 관한 논고’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인남순 한국전통문화연구원장과 손선숙 무용복원 전문가가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온 무고의 역사적 근거와 사료를 바탕으로 정읍곡(수제천)의 역사성을 뒷받침하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세계유산 고인돌과 첨단 기술의 만남

29일까지 미디어아트쇼

세계 최대 고인돌 문화제와 디지털 콘텐츠가 결합한 ‘2022 고창 고인돌 세계유산 미디어아트쇼’가 고창 고인돌 유적 특별무대를 배경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해가 지면 우리의 염원이 모여

기적이 이루어진다-황혼의 기적’을 주제로 고창 고인돌유적지 전역에서 29일까지 진행된다.

축제 기간에는 고인돌박물관 1층에선 미디어아트 특별전시(기적의 빛, 희망을 밝히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돼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관람객이 함께한 체험콘텐츠 ‘라이브스케이-

고인돌판타지아’도 운영된다.

백재욱 고창군 관광산업과장은 “고창 고인돌 유적 미디어아트쇼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이 첨단 기술과 만나 관람객들과 색다르게 소통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많이 관람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내장산 오르고 친환경 도시락 즐겨요

국립공원공단, 10일까지 행사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가 가을맞이 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 주간 행사를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는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에게 탐방로 입구까지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산행 전 도시락을 준비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회용 쓰레기 발생 저감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는 소득증대로 연계되는 일석삼조의 탐방서비스이다.

내장산 친환경 도시락은 정읍지역 농특산물 귀리, 한돈, 한우로 만든 떡갈비를 주메뉴로 ‘귀리

떡갈비 도시락’, ‘미니 떡갈비 버거’를 판매하고 있다.

예약 주문은 카카오톡 채널 ‘내장산, 내 도시락’에 부탁해’에 산행 2-3일 전 사전예약 하면 된다.

친환경 도시락 주간 이용객에게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등산용 수제세트를 무료로 나눠주고 비대면 SNS 평택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

윤대원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정읍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를 통해 환경도 지키고 탐방객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립도서관, 주민과 책 읽는 10월

한 달간 독서문화행사

남원시립도서관이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오는 18일까지 도서관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글날 제시어로 삼행시를 지어보는 ‘한.글.날 삼행시 짓기’ 행사를 실시한다. 자체 심사를 거쳐 10개 작품을 선별한 뒤, 남원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우수 작품은 21일부터 도서관 내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한글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한글날 기념행

사 퀴즈’는 한글과 연관된 5가지 퀴즈를 맞는 이벤트로, 퀴즈를 전부 맞힌 시민에게는 선착순으로 상품(86명)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글의 역사와 우수성을 되새기고 시민에게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한글 연관 도서를 전시하는 ‘북큐레이션 : 한글’도 운영한다. 유아·아동·일반도서 등 총 33권의 도서를 1층 전면 서가 및 2층 신간도서 코너에 한 달 동안 전시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의회, 3년째 의원 해외연수 예산 반납

정읍시의회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분위기를 감안, 올해 의원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4일 의원간담회가 열려 올해 의원 해외연수 예산안 ‘공무 국외 출장 예산’ 6000만원에 대해 전액 반납이 결정됐다.

이로써 정읍시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코로나19와 쌀값폭락,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실질소득이 줄어 전전공공하는 시민

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경제 위기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자는 취지의 결정이다.

고경운 정읍시의회 의장은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주고 시민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전체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